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현황과 과제

- ▶ 일시 : 2013년 10월 15일(화) 14:00~17:30
-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004호 (본원 세미나실)
-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주 제 발 표
14:00~14:10	사회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덕선(한체대 교수)
14:10~14:30	발표 1.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 교류의 중요성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14:30~14:50	발표 2.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의 현황과 과제 손의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14:50~15:10	발표 3.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 현황 고광문(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국제교류팀장)
15:10~15:30	발표 4. 유소년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강화: 대한축구협회 -사례중심 (엘리트선수 중심) 이상운(대한축구협회 교육총괄팀)
15:30~15:40	휴 식
15:40~16:00	발표 5. 유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현황과 발전 최경근 (경희대 겸임교수, 스포츠외교학 박사)
16:00~16:20	발표 6. 국가 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현황과 과제 -2012 대구 ICG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진(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 과장)
16:20~16:40	발표 7. 남북스포츠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학래 (한양대 체육학과 명예교수)
16:40~17:00	발표 8. 스포츠외교와 공공민간 외교의 개념과 범위 김나라 (스포츠외교학 박사)
	종 합 토 론
17:00~17:30	참석자 전원

목 차

발 표

1.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 교류의 중요성1
권 순 용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의 현황과 과제11
손 의 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3.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 현황23
고 광 문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국제교류팀장)
4.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강화: 대한축구협회-사례
중심 (엘리트 선수 중심)35
이 상 운 (대한축구협회 교육총괄팀)
5. 유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현황과 발전41
최 경 근 (경희대 겸임교수, 스포츠외교학 박사)
6. 국가 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현황과 과제 -2012 대구 ICG 사례를
중심으로-55
김 선 진 (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 과장)
7. 남북스포츠교류의 현황과 과제67
이 학 래 (현 한양대 체육학과 명예교수)
8. 스포츠외교와 공공·민간 외교의 개념과 범위81
김 나 라 (스포츠외교학 박사)

발표 1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 교류의 중요성

권 순 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 교류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다른 세대보다 스포츠의 가치와 역할의 강조가 두드러지는 생애주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요구에 스포츠가 잘 부합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인한다.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 스포츠를 통한 만남과 교류의 가치가 지니는 당위성 또한 그러한 잠재력 측면에서 인식될 수 있으나,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의미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매개체의 역할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스포츠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적 가치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기존의 지배적인 스포츠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는 당위성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바람직한 청소년 성장발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공공외교적 가치가 달성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양자의 목적과 전략을 고안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에 주어질 필요가 있다.

1.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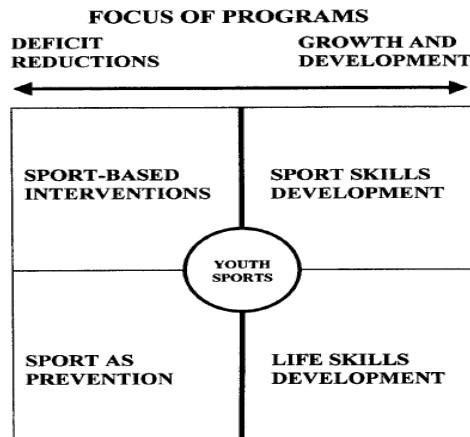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유아기와 성년기 사이에 위치하는 발달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의 의미가 자연적 불변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기보다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질 수 있다.¹⁾ 즉, 다양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그리고 각 사회영역에서 고유의 주도적인 청소년상이 다를 수 있다.²⁾ 예를 들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되어야

1) Larson, R. W., & Wilson, S. (2004). Adolescents across place and time: Globalization and the changing pathways to adulthood. In R.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299-330). NewYork: Wiley.

2) 전상진(2006).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像). *한국청소년연구*, 17(2), 5-35.

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험과 위기의 집단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희망이나 자원의 세대로 볼 수 있다.³⁾

청소년기에 해석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또한 예방(prevention), 중재(intervention), 그리고 발달(development)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고 또 그러한 목적에 따른 현장 프로그램 또한 개발 및 적용되어 왔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부정적인 문제 청소년상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문제 청소년상은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질풍노도(storm and stress)의 시기” 또는 “과도기(transitions)”라는 용어에서 잘 나타나 듯이 생애주기의 한 성장과정에서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접하게 되고 그에 젖어들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그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결손감소(deficit-reduction) 접근을 취하게 된다. 결손감소 접근에서 보는 청소년 발달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가치는 대체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적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소지를 내포한 청소년기의 특성과 통제되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 시간의 일탈적 활용에 대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험이나 문제의 근원으로 서 청소년기가 부정적 과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의미에서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폭력, 게임중독, 왕따 문화, 자살, 심리적 부적응, 가출, 약물남용 등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 일탈 및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책으로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맞게 구성 및 활용해 오고 있다.



<그림 1>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유형 스펙트럼⁴⁾ (Petitpas et al., 2005, p. 67)

3) 청소년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또한 어떤 청소년상을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의 가치는 전인적 성장(holistic development)과 정체성 함양(identity formation and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전인적 성장이란 개인의 다양한 발달영역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생적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영역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인적 발달은 긍정적인 바람직한 자아정체성(self-identity) 형성을 통하여 가능하다. 청소년기는 주로 “과도기”로 이해된다. 즉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의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는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그 불안정성과 역동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은 바람직한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 함께 문제행동의 감소에도 기여하게 된다.⁵⁾ 청소년기 바람직한 스포츠 활동 참가는 생애주기의 극적 전환기로서 청소년기 자아성찰과 자아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스포츠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신의 능력, 가치, 관심을 탐색하고 성장하며 발전시키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일상 활동과 다르게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자율성(autonomy)을 지니고 자발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한편 청소년기를 문제, 위험, 위기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예방이나 처치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게 된다. 즉,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의 예방적 가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없는 청소년기가 최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히 문제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성인기 삶의 도전과 책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단순히 문제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질과 지식, 덕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4) Petitpas, A.J., Cornelius, A.E., Van Raalte, J.L., & Jones, T. (2005). A framework for planning youth sport programs that foster psychosocial development. *The Sport Psychologist*, 19, 63-80.

5) Palen, L. & Coatsworth J.D. (2007). Activity-based identity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 to problem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0, 721-737.

6) Pittman, K., Irby, M., Tolman, J., Yohalem, N., & Ferber, T. (2003). *Preventing Problems, Promoting Development, Encouraging Engage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sed upon Pittman, K. &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Available online at www.forumfyi.org.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청소년 발달과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즉, 생애주기의 중요한 단계로서 청소년기에 습득되어야 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배양에 스포츠 참가가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청소년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함양과 그를 통한 전인적 발달에 덧붙여,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제의 바람직한 수행에 중요한 기여할 수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⁷⁾.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서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목표영역이나 자질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erner et al.(2005)⁸⁾은 청소년 발달은 학업,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connection), 인성(character), 그리고 배려와 이타심(caring and compassion) 등 다섯 가지 C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rson(2000)⁹⁾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이 창의성(creativity), 지도력(leadership), 이타주의(altruism), 그리고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 네 가지로 자질로 구성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King et al. (2005)¹⁰⁾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청소년 발달 문헌을 검토한 후 역량(competence), 대응(coping), 건강(health), 끈기(resilience), 그리고 안녕(well-being) 등 다섯 가지 공통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Benson (2003)¹¹⁾은 청소년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7) Eccles, J.S., Barber, B.L., Stone, M., &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9(4), 865–890.; Passmore, A., & French, D. (2001).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of a measure to assess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dolescence*, 36 (141), 67–75.

8) Lerner, R.M., Lerner, J.V., Almerigi, J.B., Theokas, C., Phelps, E., Naudeau, S., et al.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s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17–71.

9) Larson, R.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1), 170–183.

10) King, P.E., Schultz, W., Muller, R.A., Dowling, E.M., Osborn, O., Dickerson, E., et al.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Is there a nomological network of concepts used in the adolescent development literatur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 216–228.

11) Benson, P.L. (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y: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R.M. Lerner and P.L. Benson (Eds.),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p. 19–43). Norwell, MA: Kluwer Academic.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이라고 개념화하였다. Benson의 발달자산은 총 40개에 이르는데, 크게 외적자산(external assets)과 내적자산(internal assets)으로 구분된다. 외적자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사회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 경험과 사회적 여건을 말하며 지지(support), 역능부여(empowerment), 명확한 범위 및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s), 건설적인 시간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 등 4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내적자산은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열의(commitment to learning), 긍정적 가치관(positive valu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그리고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 등의 범주가 포함된다.

최근 이상과 같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질이나 요소에 대하여 스포츠 참가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많은 학술적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Fraser-Thomas et al., 2005; Holt, 2008; Weiss & Weise-Bjornstal, 2009)¹²⁾. 예를 들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nson의 발달자산 개념은 최근 스포츠를 포함한 신체활동의 맥락에 적용되고 있다.

Physical Assets Motor skill competencies and movement literacy Sport-specific competencies Physically active lifestyles Knowledge about physical activities, sports, and games Physical fitness Physiological capacities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Assets Self-determined motivation toward physical activity Positive values toward physical activity Feelings of self-determination, autonomy, and choice Positive identity, body image, and self-esteem Perceived physic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Positive affect and stress relief Moral identity, empathy, and social perspective-taking Cognitive functioning and intellectual health Hope and optimism about the future
Social Assets Support from significant adults and peers Feelings of social acceptance Close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Leadership, teamwork, and cooperation Respect, responsibility, courtesy, and integrity Sense of civic engagement and contribution to community Resistance to peer pressure to engage in risky behaviors

<표 1> 신체활동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발달자산(Weiss & Wiese-Bjornstal, 2009, p. 2)

12) Fraser-Thomas, J. L., Côté, J. & Deakin, J. (2005). Youth sport programs: An avenue to foster positive youth³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0(1), 19-40.; Holt, N .L. (2008).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London: Routledge.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자질이나 목표영역을 요약하면 먼저 청소년기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는 단지 학업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social/emotional), 도덕적(moral), 시민적(civic), 직업적(vocational), 신체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그리고 개인적/문화적(personal/cultural) 영역에서의 발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발달과제를 수행하고 발달자산을 축적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다섯 가지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 즉 역량(competence), 인성(character), 관계(connection),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배려(car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개념화할 수 있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자질이나 목표영역을 요약하면 먼저 청소년기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는 단지 학업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social/emotional), 도덕적(moral), 시민적(civic), 직업적(vocational), 신체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그리고 개인적/문화적(personal/cultural) 영역에서의 발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발달과제를 수행하고 발달자산을 축적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다섯 가지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 즉 역량(competence), 인성(character), 관계(connection),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배려(car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개념화할 수 있다.

2.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조건

이상에서 논의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 접근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의 결과 또는 자질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이상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과연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러한 가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바람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가정적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자체에는 마법적인 것이 전혀 없다… 결과는 스포츠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Papacharisisi et al., 2005).

“...스포츠가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하다. 대부분의 다른 활동과 같이 스포츠는 선형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모두 생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유용한 결과를 생산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중요하다” (Patrikson, 1998).

“스포츠 기반 사회개입 프로그램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외적 요인의 장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일단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Hartmann, 2003, p. 134)

“스포츠 참가가 스포츠 이외의 삶에서 개인의 기회, 경험, 사회관계, 그리고 능력을 제한하게 (constricts) 될 때, 그러한 스포츠 참가는 운동선수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Coakley, 2009, p. 103)

스포츠 참여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이루기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정리는 다음과 같다¹³⁾. 아래와 같은 조건은 매우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고려가 결여될 때 사회적 개입(social intervention) 전략으로서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렵다는 지적이다(Coakley, 2002, p. 28).

1) Being Physically Safe

스포츠 프로그램은 안전해야 한다. 공격성, 호전성, 상대에 대한 지배, 신체의 도구적 무기화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다. 즉, 비폭력 가치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Trulson, 1986)이 함께 가르쳐질 때 효과가 있다.

2) Being Personally Valued

스포츠 프로그램이 개인의 역량발달과 자아 존중감 증진으로 연결될 때 사회적 차원의 도덕관(moral sense)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즉, 청소년이 전인으로 대우, 존중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경험의 확인이 이루어질 때 도덕관(moral sense)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13) Bailey, 2005; Coakley, 2002; Coakley & Donnelly, 2002; Hellison, 2003; Hellison & Walsh, 2002; Lawson, 2005; Martinek & Hellison, 1997; Muller et al, 2008

3) Being Socially Connected

스포츠 프로그램이 집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이해심, 유연한 대인관계, 의사소통, 갈등조절 기술 등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발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Being Morally and Economically Supported

성인 특히 주요타자(부모, 교사, 멘토 등)로부터 도덕적, 경제적 지지가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도덕적,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Being Personally and Politically Empowered

스포츠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수용 및 반영될 때 청소년의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여할 수 있다.

6) Being Hopeful about the Future

스포츠 프로그램이 삶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신념과 그에 대한 효능감을 제공할 때 미래에 대한 개인 삶의 다양한 비전과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발표 2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의 현황과 과제

손 의 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의 현황과 과제

1. 청소년 교류활동 추진체계

가. 청소년 교류활동 추진근거

청소년 교류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서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내지 59조에서 국가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교포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및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의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점과제 1-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여성가족부, 문화부)

2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여성가족부)

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테마형 해외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등 추진 (여성가족부, 외통부)
- 해외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여성가족부)
-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여성가족부, 외통부)

5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통일부)
-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화 (통일부)

나 . 청소년 교류정책 추진체계

청소년 교류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주무부서의 잦은 통폐합 등 다음과 같이 변천해 왔다.

1988.	체육부 청소년국에 청소년교류과 설치(교육부의 국제교류 업무 이관수행)
1993~2005. 4.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참여과 등
2005. 4. 27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에 교류문화팀
2006. 1. 23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에 국제교류팀
2008.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
2010. 3.~2013.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교류과 및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산하기관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가 있다. 청소년교류센터는 2013년 1월부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교류센터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제교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구
-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 운영
- 국내·외 청소년 기관, 단체, 시설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실행(중국 특별교류 포함)
- 해외자원봉사, 국제회의·행사 등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
- ODA,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청소년 국제협력 사업 개발 운영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국제교류 부문) 운영 및 관리
- 국제교류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매뉴얼 개발
-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 개발 및 기획, 실태조사·분석
-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관리 및 개선
- 국제교류 참가자 사후활동 관리 및 활성화 지원
- 기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2.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 현황

가. 청소년 국제교류

1)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에는 22개국과 파견 323명, 초청 324명 등 총 647명의 교류를 시행하여 12년까지 누적인원은 8,732명이다.

표 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1개국)

아시아 (10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 (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 (2개국)	칠레, 멕시코
중동·아프리카 (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자료 : 여성가족부(2011).

표 2 최근 3년간 청소년교류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교류국가	24개국	22개국	21개국
총인원(명)	647	647	620
파견(명)	328	323	303
초청(명)	319	324	317

2)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00명과 400명을, 2011년에는 200명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하였다.

표 3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 청				파 견			총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	198명 (7.21~7.30)	189명 (11.1~11.10)	100명 (11.17~11.26)	487	-		-	487
2005	192명 (7.6~7.15)	100명 (9.7~9.16)	191명 (11.15~11.24)	483	-		-	483
2006	96명 (5.24~6.2)	193명 (7.5~7.14)	200명 (11.1~11.10)	489	98명 (4.12~4.21)		98	587
2007	200명 (4.7~4.16)	100명 (6.13~6.22)	191명 (11.1~11.10)	491	97명 (7.3~7.12)		97	588
2008	154명 (8.18~8.27)	100명 (10.29~11.7)	150명 (11.5~11.14)	404	95명 (7.22~7.31)		95	499
2009	196명 (7.8~7.17)	99명 (9.16~9.25)	185명 (11.11~11.20)	480	96명 (5.13~5.22)	99명 (8.3~8.12)	195	675
2010	192명 (6.2~6.11)	100명 (10.13~10.22)	187명 (11.11~11.20)	479	192명 (5.11~5.20)	190명 (9.7~9.16)	382	861
2011	191명 (6.15~6.24)	98명 (9.21~9.30)	193명 (10.26~11.4)	487	197명 (5.17~5.26)		197	679

자료 : 여성가족부(2011).

3)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2007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청소년 100명을 파견하였고, 2008년에는 일본, 2009년에는 한국, 2010년에는 중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2년 3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며 한국 청소년 1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표 5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현황

연 도	개최국	장 소	기 간	인 원
2007	중국	베이징	8.16~22	300명(한·중·일 각국 100명)
2008	일본	도쿄	9.17~23	300명(한·중·일 각국 100명)
2009	한국	서울	7.21~27	300명(한·중·일 각국 100명)
2010	중국	베이징	7.21.~27	300명(한·중·일 각국 100명)

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꿈과 사람 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 중심의 국가에 청소년을 파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현장 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표 6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현황

년도	시행 국가	파견팀	인원	파견국가명
2005	1	1개	35명	캄보디아
2006	14	23개	436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2007	16	32개	593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2008	12	41개	715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2009	12	34개	630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2010	12	34개	654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2011	11	34개	704명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중국, 태국
2012	5	8개	160명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표 7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단위: 팀, 명)

구분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계
파견팀수	2	8	2	4	4	2	2	1	5	4	1	34	34
파견자수	16	203	34	67	70	33	35	18	112	99	17	704	654

2) 국제회의·행사 파견단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사업은 개인 및 동아리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위원회, 국제환경청소년캠프, 유엔 제3위원회 등 국제적인 회의 또는 행사에 청소년 또는 동아리를 선발, 매년 10개국 내외 20~60명 규모로 파견되고 있다.

표 8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단위: 국,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파견국	10	20	15	9	4
파견인원	54	85	85	59	18

3.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과제

첫째, 국제교류활동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공통의 교육과정 개발, 사업운영 및 진행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단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책임 있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이 그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우의 증진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에 대한 자기성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윤리로서의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간 교류 사업은 일반기업체 또는 사적영역에서 할 수 있는 교류활동과는 반드시 차별화 되어야 한다.

둘째, 사후활동지원 및 성과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교류활동은 습득한 지식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사후활동의 방향과 목표설정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성과측정은 기존의 사업 참가자 만족도 설문수준에서 좀 더 나아가 참여주체가 모두 참여는 계량적/정성적 평가 및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다. 평가결과가 후속사업에 반영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국제활동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교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셋째, 전담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교류센터가 국가의 교류정책 추진체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아래 교류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정책으로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정책의 중장기적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을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중복성, 일회성, 일방성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한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와 청소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정국가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과 국가 간 청소년 교류협정을 맺은 국가는 31개국이나, 실재는 20~22개국 내외의 국가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지역과의 교류가 부진하다.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11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31개국				3,971	4,141	8,112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 문화협정(1965) 한·말 청소년교류 약정 (1992. 4) 지도자 15명 추가- 공공행정처	1979	15명 10일간 (2002년부터 30명)	589명	596명	1,185명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1981) 청소년협력 협약각서(2001)	1981	10명 10일간	274명	275명	549명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1984)	1987	40명 15일간 (2003년부터 30명씩, 초청국 전액부담)	716명	815명	1,531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 연합회)	양국 수교시 교류합의 (19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 (1998)	1993	20명씩 10일간 (1998년부터 40명)	638명	675명	1,313명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1992)	1993	15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11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1995)	1994	30명씩 기간미 명시 (2007부터 20명 10일간)	179명	184명	363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1995) 청소년교류 약정서(2007)	1996	10~20명 10일간 (연초협의)	121명	151명	272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협정(1990) 청소년교류약정서(1994)	1996	(1995~1996) 15~20명 10~14일 (2009부터 16명, 10일)	101명	134명	235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1996) (2005 갱신)	1996	청소년전문가 5명 7일간 (연초 협의 결정)	53명	71명	124명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1996)	1998	20명 10일간	31명	52명	83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1999) 재약정 체결(2004)	1999	20명 10일간 (베트남 30명)	398명	256명	654명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2001)	2000 시범교류	10명 10일간	124명	114명	23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2000) 재약정 체결(2008)	2001	10~20명 10일간	105명	114명	21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2002)	2002	10~20명 10일간	89명	97명	186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2002)	-	10~20명 10일간	2명	-	2명
체코 (교육청소년 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2003) 약정갱신(2008)	20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80명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 (2004.5)	2005	10명 10일간	59명	67명	126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2004.12)	2005	10~20명 10일간	70명	70명	14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 (2005.4)	2006	10~20명 10일간	90명	88명	178명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2005.9)	2006	7명 7일간 (10명, 10일간)	39명	9명	48명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 내용 (인원·기간)	2011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양해각서 (2005.12.14)	2006	10-20명 10일간	30명	60명	90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양해각서 (2006.12.13)	2006	8명 6일간 (정부공무원 5, 지도자3)	10명	8명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2005.9.23)	2007	10-20명 10일간	82명	80명	162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협력약정 (2007.3.26)	2007	인원 및 기간 연초협의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 (2007.4.23)	2007	10명 10일간	39명	39명	78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2007.12.10)	2008	인원 및 기간 연초협의	16명	23명	39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09.6)	2010	10명 10일간	5명	10명	15명
싱가폴 (국가청소년 위원회)	청소년분야 양해각서(2009.6)	2009	10명 7일간(격년)	10명	20명	3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09.6)	2010	10명 10일간	23명	23명	46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 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10.2)	2011	10명 10일간	10명	10명	20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11.11)	-	10명 10일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1.12.31 기준

발표 3

.....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 현황

고 광 문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국제교류팀장)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 현황

1. 들어가는 말

태권도는 한국에서 발생하여 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었고 현재 태권도 인구는 8,000만에서 1억 명 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태권도 가입국은 205개국(WTF, 2013)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에 선정되어 국제스포츠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의 다원화, 다양화 특성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는 생활의 편리와 풍요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개인중심, 체력저하 그리고 정체적 상실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시간의 증가와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의 욕구 증대를 위하여 스포츠에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이종영 외, 1998). 특히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건전한 성장과 발달(문영웅 외, 2013)과 사회화 과정의 발달의 측면(김형준 외, 2010)은 물론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사회화 주관자로서 스포츠가 요청되었다(허준 외, 2012; 조남홍, 2011).

스포츠 활동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자기수양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 신념 등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진갑, 2000).

특히 많은 스포츠 가운데에서도 무도적 기능을 가미한 태권도는 수련자의 85% 이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성숙기에 태권도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도 스포츠 이다(라광운, 1992).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 청소년기의 경험하는 교류는 청소년기 전·후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국제교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박진규,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새로운 동기부여와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역동적인 세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권도의 특성과 역량을 활용하고 충분히 발전시켜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다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글로벌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외국문화를 체험하고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태권도를 통해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정부와 태권도 유관단체들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

태권도 수련자 구성에서 청소년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수련인구비율이 높다(국기원, 2012). 청소년기 태권도 수련은 학업과 병행을 같이하고 있어 신체적 단련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중요한 요소이다.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교육학과 체육학을 접목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전정우, 2002; 이동호, 2009; 이규형, 2000).

첫째, 연습의 효과 (김은철 외, 2011)이다. 태권도 수련은 스트레칭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주운동과 같은 부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신체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태권도 품새의 연습은 신체의 균형성과 협응 작용을 발달시키며 효율적인 동작의 메커니즘을 터득하게 한다. 또한, 심폐기능의 강화에 도움을 주며 근 파워와 근지구력 특히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둘째, 보상의 제공(남덕현 외, 2012)이다. 태권도 수련할 때, 누구나 도복과 함께 태권도의 성취와 수준을 나타내는 띠를 착용한다. 도복을 착용함으로써 수련생들은 일반적인 활동이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도복은 또한 학생들에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며, 소속감을 갖게 해 준다. 또한 띠를 착용함으로써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갖는 성취정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참가자에게 어떤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구조화의 제공이다. 태권도에서는 체육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조직화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연습 시에 도장에서 수련생들은 사범을 비롯한 선배동료에게 태권도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예의로써 행동한다는 것을 맹세하거나 선언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증력경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일반체육수업의 활동보다 태권도를 보다 구조적이며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넷째, 완전학습 기회 제공이다. 태권도 연습의 기본적인 원칙은 기능습득을 위해 철저한 완전학습을 기본으로 한다.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수련생들은 기술의 습득을 위해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함께 집중하여 설명을 듣고 원리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태권도 학습에는 정확한 동작의 습득을 위해서 대단히 인내심 있는 반복연습이 필요하며 수련생들은 적절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추기 전까지 겨루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태권도 수련 시 완전학습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집중력 향상의 기회제공이다. 운동시작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명상은 태권도 수업이 일반체육시간과 확연히 다른 정신수양활동이며 태권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련 가운데 가장 명백한 정신적인 수련시간이다. 일반 체육활동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명상을 통한 수련은 신체활동이나 연습의 시작 전과 후에 이루어지며 평상심, 자세심, 극기심, 자신감 등을 배양할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미적 개념의 습득기회 제공(정재환, 2008)이다. 태권도는 일반 체육프로그램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미적개념을 습득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품새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수련생들은 자신의 스타일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하여 수련생들은 무도의 진수와 본질을 깨닫는 동시에 동작 하나하나의 미적인 개념의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일곱째, 자신감 배양이다. 성미희(2004)는 태권도 수련기간이 길수록 운동능력 자신감, 리더능력 자신감, 그리고 힘 능력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했다. 태권도는 그 자체의 본질에서 교육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태권도는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종교성과 교육적 양면성을 가지고 인격형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체의 중요부위를 단련시킴으로써 신체를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동적인 무도이다.

3. 태권도 국제교류 현황

1)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1) 국기원 소개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확산시켜 국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며,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전 세계에 태권도의 전통적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켜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기원 국제교류 행사

①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 목적

- 해외 태권도인의 종주국 방문 기회 제공 및 전 세계 태권도계 문화 교류의 장 마련
-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 마련

○ 규모(2013 기준)

- 참가인원: 3만 2천명(외국인: 50개국, 4천명; 내국인: 2만8천명)
- 경연종목: 12개 종목, 59개 부분

○ 의미

- 해외 청소년들이 태권도 종주국에서 경기 참여를 통해 자부심을 함양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의 이해와 민족의 얼 확인 시켜주는 기회의 장 마련
-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 및 스포츠 문화 산업 육성의 발판 마련
- 전 세계 태권도인의 교류를 통한 국기원의 국제적 역할 부각

② 문화동반자 사업

○ 목적

- 해당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한국 문화 및 태권도 전파를 위한 동반자 구축

○ 규모

- 11개국 11명 초청하여 3개월 동안 한국문화 및 태권도 연수

○ 의미

- 참가자 자국에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알림

2) 세계태권도 연맹 (WTF)

(1) WTF 소개

세계 태권도를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대표 기구로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인증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 현재 205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 WTF 국제교류 대회(행사)

○ 의미

-IOC 산하 단체로 주로 올림픽 대회 및 세계대회와 같은 엘리트 태권도 대회

○ 종류

-WTF World Junior Championships

-WTF Qualification Tournament for Youth Olympic Games

○ 의미

-경기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의 훈련과 발전을 촉진하고 205개 회원국을 통하여 국가 간의 국제 태권도 교류 활성화

3) 태권도원

(1) 태권도원 소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2005년 7월 1일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태권도 진흥 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태권도 원 행사

① 세계태권도 청소년 캠프(WTF와 공동개최)

○ 목적

-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및 올림픽 정신, 이념 실천
- 세계 청소년 태권도 문화교류 확대

○ 규모

- WTF 205개국 회원국 중에서 주니어(15~16세) 선수 350명 초청

○ 의미

- 국제 청소년 태권도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세계화 흐름 속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여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역할 창출
- 지구촌 미래를 이끌어갈 각국의 젊은 주역들이 한데모여 민족화합과 평화 기약

②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 목적

- 전 세계 태권도 지도자 및 동호인을 초청하여 세계문화관광 유산이 될 태권도공원조성 홍보
- 엘리트 체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다각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 태권도인의 교류증진 및 체험기회 제공

○ 규모(2013년)

- 31개국 2,500명

○ 의미

- 태권도를 통한 지구촌 한 가족 발판 마련 계기
-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신 고양하고 호연지기 증대

4) 기타

- (1) 한-아랍 소사이어트- 청소년/대학생 태권도 교류프로그램
- (2) 한중문화협회 위해지회- 한중청소년 태권도문화교류대회
- (3) 중국 항조우시 순리문화유한공사-한중 청소년 친선 태권도 교류대회
- (4) (사)세계청소년태권도연맹- 전국한마당대회
- (5) 세계태권도어린이연맹-국제대회 개최

4. 시사점

- 태권도 수련 층이 대부분 청소년들로 구성돼 그런지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화된 태권도 국제교류 단체나 조직이 많지 않다.
- 태권도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태권도를 통한 국제 교류는 주로 대회 참가 및 메달획득에 집중하고 있어 교육적 태권도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태권도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 교류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외에서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어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의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지만 국내 참가자들은 단지 해외 참가자를 통한 간접경험만 할 수밖에 없어 추후 양방향 교류 등에 대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형준, 이광모(2010).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시간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 김은철, 광정현(2011).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한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 무예연구, 5(1).
- 남덕현, 김수현, 이재환, 하철수, 박웅배(2012). 태권도 수련생의 자아효능감과 생활만족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14(3).
- 라광운(1992). 태권도 수련이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웅, 이상호, 백영호(2013). 태권도 수련과 영양교육이 청소년의 건강관련체력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29.
- 박진규(2004). 우리나라 국제 청소년 교류현황과 교류유형 탐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471-506.
- 성미희(2004). 태권도 수련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형(2000). 태권도 교육철학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39(4).
- 이동호(2009). 체육교사가 인식하는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그 의미 탐색. 대한무도학회지, 11(3).
- 이종영, 윤희(1998). 태권도 수련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지향성의 관계. 제 36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이진갑(2000). 여가스포츠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3), 175~184.
- 전정우(2002). 태권도 가치 계층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환(2008). 태권도 시범의 미적 가치탐색.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남홍(2011). 여가스포츠 사회화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8(3).
허준, 이운호(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8(2).

Websites

국기원: www.kukkiwon.or.kr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www.worldctu.com
세계청소년태권도연맹: www.wytf.or.kr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www.wtcexpo.net
세계태권도연맹: www.wtf.org
태권도원: www.tpk.kr
한-아랍소사이어트: www.korea-arab.org

발표 4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대한축구협회 -사례중심 (엘리트 선수 중심)

이 상 운

(대한축구협회 교육총괄팀)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강화: 대한축구협회-사례중심 (엘리트 선수 중심)

1.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대한축구협회>

가. 시기 : 9월에서 12월 중

 - 4팀(남.녀 각 중1, 중2)매년 각 5박 6일 (매년, 총 24일)

나. 장소 : 한국(파주NFC, 목포축구센터, 창원축구센터), 일본 (오이타, 사카이)

다. 참가인원 : 80명 (회당 20명)

 - 남자 : 파견 - U13(중1), 초청 - U14(중2)

 - 여자 : 파견 - U14(중2), 초청 - U13(중1)

라. (공식)교류경기 : 2회 ~ 3회

마. 목적 : 한일 양국의 유소년 축구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양국 선수들의 문화적 교류
 및 우호 증대

바. 기타 :

- 양국 코칭스텝과 선수들을 혼합하여 합동훈련
- 일본도자기 만들기, 임진각 방문 등 문화교류
- 양국 선수들에 교류시간 제공



※ 위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종목 또한 국제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음.

- 육상, 수영, 체조, 유도, 핸드볼, 배구, 레슬링, 소프트볼, 탁구, 하키, 배드민턴, 역도, 카누
(2013기준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 583,000,000원)

2. 한.독 교류전 <대한축구협회 사업>

가. 시기 : 11월 중 2주간, 매년 실시

나. 장소 : 독일 (마인츠, 슈투트가르트)

다. 참가선수 : 20명

라. (공식)교류경기 : 2회 + 로컬 유스팀과 친선경기 (2~3회)

마. 목적 : 양국의 유소년 축구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양국 선수들의 문화적 교류 및 우호 증대

바. 기타 : 경기 이외, 양국선수단 합동훈련 및 상호 교재 시간 제공



- ※ 유소년 (U-14, 중2년)들의 친선경기였지만, 국기 입장 및 애국가 연주 등 정식경기 형태의 순서에 따라 진행됨
- ※ 많은 일반 학생들이 관중(유료)으로 참여하여 한국선수들 경기력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특히 하프타임에는 주체 측에서 당시 독일에서도 상당한 인기곡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틀어 한국의 축구(스포츠)와 음악에 대해 독일인들에 상당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됨.

3. 일선 학교 축구팀 및 유소년축구 클럽팀 들의 국제교류 현황

가. 시기 : 7. 8월중 10일~14일

－ 단발성 해외 국제대회 참가 (예: 스웨덴 고디아 컵 외)

나. 장소 : 아시아 지역 및 기타 국외 지역

다. 경기방식 : 리그 방식과 패자팀 경기를 두어 많은 경기를 할 수 있음

라. 참가 선수 : 40 ~50명

－ 3~4개 학교팀이 연합하여 대회 참가 (희망자)

－ 선수등록을 작게하여 단일팀이 아닌 복수팀으로 대회 참여

마. 목적 : 어린 선수들에 국제경기 경험 및 같은 또래선수들과의 문화교류

바. 문제점 : 고비용으로 선수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충당

※. 기타

1. 각 지역 협회 및 연맹 단체: 국외 자매결연 지역 스포츠 교류

(예: 서울시 축구협회, 유소년 축구연맹, 대학축구연맹 등)

4. 개선방안

1) 유.청소년 국제 클럽축구 페스티벌 개최

－ 적절한 비용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방식

－ 축구여행 상품 개발 (대회 참가 및 기타), 유소년 시절 좋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경주 일대, 강원도 속초

2) 엘리트 중심적 교류 -> 비엘리트 선수들에 국제교류 기회 제공

- 재능기부 등을 통한 학교 체육(축구) 활성화 유도
- (가칭)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학생축구대회 : 비 엘리트 선수 참여
- 연간 또는 단기 토너먼트 지역대회를 거쳐 - 전국대회 (년 1회)
- 축구(운동)의 장점을 공익광고를 통해 대회 홍보 (유.청소년들의 컴퓨터, 전화기, 비만, 왕따 등의 사회적문제) -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축구: 유산소 운동의 장점, 팀 정신, 희생정신)
- 우수 클럽팀에 국제교류 기회제공

**3)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민간외교 프로그램 개발
<특히 유.청소년 연령대 선수>**

- 일선학교와 각 종목 협회와 자매결연 또는 사업 협력 시스템 구축
- 경기가 없는 날 학교로 초청하여, 상호 교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 예) 한국전통 문화, 서예, 태권도, 학생들 장기자랑, 종목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게임 등

4)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자선 경기에 해외 유.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개발

- 예) 홍명보, 박지성 자선 축구대회

5) 4번 사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축구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지 못한 나라에 운동장 시설(잔디 외) 지원 및 용품지원 (축구공 외) 사업

- 예) FIFA Goal Project - 축구관련 시설 지원 프로그램
- 운동장 시설 (후원관련 동판 제작)
- 일본: 인재 활용, 중국: 대회유치

발표 5



유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현황과 발전

최 경 근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스포츠외교학 박사)

유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현황과 발전

1. 서론

유소년 스포츠의 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유소년의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유소년 스포츠가 과거에 비하여 활성화 되면서 유소년스포츠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고, 유소년 대상 나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소년의 사전적 정의는 유년과 소년을 포함하는 의미로써, 이는 다시 유아기(乳兒期 : 출생~1세), 유아기(幼兒期 : 1~6세) 및 아동기(兒童期 : 6~13세)로 구분된다. 영어로 Youth가 유소년에 해당하며, 이는 또 Childhood와 Maturity로 구분된다(최경근, 2007). 유소년(Youth)의 개념을 UN에서는 15세 이상에서 24세 이하까지로 정의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령에는 유소년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나영일, 2013).

또한 IOC에서 주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올림픽인 Youth Olympic Games에서는 참가 대상 연령은 14~18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소년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구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의 유소년스포츠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성장기 유소년들의 신체활동의 필요성은 국가의 행정 담당자들보다 부모들과 아이들의 필요성에 의해 역으로 견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많은 유소년 스포츠 학원과 클럽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있는 역할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스포츠 활동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한 정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의 시작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신체활동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80년대 중,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생활과 교육의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주말체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한 유소년스포츠 활동이 스포츠학원과 클럽에 의해 시작되었다(최경근, 2008). 초기단계의 유소년스포츠 학원과 클럽들은 자체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축구 등 단순한 종목단위의 활동으로 단지 학교체육의

육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는 단계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전문적인 지도자와 실내·외의 전용시설, 잔디구장과 수영장 등 자체시설로 갖춘 기업 형태의 대형 스포츠학원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을 주 비즈니스로 하는 기업들이 유소년스포츠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시장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자체 시설을 갖춘 지역별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유소년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유소년스포츠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소년스포츠클럽의 국제교류

유소년스포츠클럽들이 대형화 되면서 부모들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와 클럽들의 네트워크의 다변화의 전략으로 해외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몇몇 유소년 스포츠클럽들은 외국에 자매 클럽과의 정기적인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과 일본체육진흥센터 이사장을 지낸 오노 기요코를 회장으로 하는 아시아키즈스포츠클럽협회를 발족하고 일선 스포츠클럽들의 민간 스포츠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민간의 유소년스포츠 클럽이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본의 경우 민간의 교류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일본의 도쿄도 근교의 후지요시다시의 경우 한·일 민간 유소년스포츠클럽간의 교류행사에 시가 나서서 무료숙소와 교류장소를 제공하고 행정 전반을 지원하며, 지역 방송에서는 행사를 취재하고 뉴스에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양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등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민간 유소년스포츠 교류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생활체육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행사도 예산 등의 이유로 국제교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는 1996년에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국가 간의 교류 행사임에도 말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유소년스포츠가 민간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유소년스포츠의 국제교류 또한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정부주도의 청소년 국제교류

정부주도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96년에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생활체육교류가 결정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성인은 국민생활체육회가 청소년교류는 대한체육회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다.

2002년에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사업을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명명하고 교류종목과 참가인원을 8종목 110명에서 9종목 190명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부터 한·일 교류를 계기로 한·중 생활체육 교류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7년 중·일 생활체육 교류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체육학회, 2013).

현재 한·일 청소년스포츠 교류사업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인원 9,026명(하계: 5,801 / 동계: 3,225)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주도하에 지속되고 있으나, 교류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을 한국은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일본의 경우와 교류대상의 경기력 차이 문제로 교류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국 정산 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래프로젝트”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민간 청소년의 스포츠 국제교류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교류의 주체인 대한체육회의 담당업무가 엘리트 스포츠육성에 치중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한·중·일 간의 청소년스포츠 교류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민간 유소년스포츠클럽의 유소년들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 밖의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로는 한·중·일 주니어 교류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 인접해 있는 3개국의 청소년 스포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3년부터 3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참가선수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개최지 선발팀을 합쳐 4개 팀으로 구성, 고교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진행된다. 각국의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장차 각국의 대표선수로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표 1 한·중·일 주니어교류 최근 3년 현황

	연도	날짜	개최지	종목
18회	2010	8. 23 ~ 29	중국 허남성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농구, 역도, 핸드볼, 정구, 탁구, 배드민턴, 럭비
19회	2011	8. 23 ~ 28	일본 아이치현	
20회	2012	8. 23 ~ 29	한국 광주시	

4. 세계의 유소년스포츠 국제교류

1) 미국의 사례

미국의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은 미국과 타 국가 간의 친선 도모와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 간의 이해 촉진을 목표로 하는 부서이다. 교육·문화국은 국제적인 문화·교육 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호 이해에 기초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160개 이상의 국가들과 학문, 문화, 스포츠 기타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 교육가, 미술가, 운동선수 그리고 부상하는 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인적교류 및 공공외교 부분은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사고방식, 미국식 생활양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셸 쿤 선수와 같은 국제적 스포츠 스타를 공공외교 사절로 임명한 것은 오늘날 외교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정부는 세계스포츠프로그램(International Sports Programming Initiative)이라는 행사를 통해 비영리 단체에게 기금을 수여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미국 국민과 외국인들 간의 소통과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스포츠, 운동과 건강, 장애인체육,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부터 미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는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여성들과 청소년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 국제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스포츠외교관의 외국 방문과 외국 스포츠 인사들의 초청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에 관련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육문화국은 청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청소년들 간의 지속적 관계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이해, 리더십 증진, 교환 교육, 민주시민 정신 함양 및 스포츠교류를 통한 소통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국무부는 청소년 야구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자국 청소년들과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8월 23일 일본 청소년 야구선수들과 코치를 초청하여 교류 행사를 가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일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를 통한 인적 교류를 넘어 차세대 외교정책 목표의 달성 및 합법성 유효성,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장기적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독일의 사례

2009년 6월 독일청소년체육회(DSJ)는 중국청소년협회(AVYF)와의 만남에서 독일 청소년체육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독일청소년체육인들의 정책적 참여, 그리고 독일청소년체육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독일연방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400명의 중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각 주별로 16개 그룹으로 나누어 스포츠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2년 독일과 일본은 150년 우호관계를 기념하여 독일청소년체육회와 일본체육회가 39번째 동시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약 100명의 독일 청소년과 일본 청소년들이 3주 동안 각 나라의 가정에 머물면서 “스포츠는 우리를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들과 스포츠를 즐기고 상대국의 문화를 배운다. 동시에 원전 사고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여 독일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이를 위해 독일올림픽체육회는 10만 유로(약 1억 5천만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올림픽체육회는 2012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지역 어린이 70명을 “여가 스포츠를 통한 회복”이란 도움프로젝트를 주관하였다. 독일 올림픽체육회와 독일 청소년체육회, 7개 주의 산하조직 및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가라데협회, 보그너, 이비스(Ibis), 미즈비시, 도요타와 같은 기업, 그리고 많은 개인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 일본의 사례

1986년에 결성된 “일·중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계획”을 토대로 양국 청소년스포츠관계자에 의해 진행되어 온 상호교류(격년 방문)는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육성 및 청소년스포츠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충실도를 높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표 2 일·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추진 현황

연 도	구 분	청 소 년 스포 츠 교 류		
		인원 수	기 간	장 소
1999년	방중	일본선수단 38명	8월 11일~17일	山東省: 시즈오카시·戒海市
2000년	방일	중국선수단 40명	8월 16일~22일	야마가타현: 츠루오카시
2001년	방중	일본선수단 38명	8월 4일~10일	江蘇省: 南京市·無錫市
2002년	방일	중국선수단 34명	7월 31일~8월 6일	카가와현·다카마츠시

연 도	구 분	청 소 년 스 포 츠 교 류		
		인원 수	기 간	장 소
2003년	SARS가 발생하여 일본선수단 방중 중지			
2004년	방중	일본선수단 40명	8월 20일~26일	광둥성: 佛山市, 廣州市
2005년	방일	중국선수단 39명	8월 22일~28일	아이치현, 유타카하시시
2006년	방중	일본선수단 40명	8월 20일~26일	天津市
2007년	방일	중국선수단 40명	8월 21일~27일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2008년	방중	일본선수단 32명	8월 21일~27일	상해시
2009년	방일	중국선수단 40명	8월 16일~22일	홋카이도
2010년	방중	일본선수단 40명	8월 16일~22일	江蘇省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중국선수단 방일 중지			
2012년	방중	일본선수단 35명	8월 19일~25일	陝西省 · 西安市

방중 전 행사에 참가하는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방문국인 중국 및 중국의 스포츠에 관한 예비지식을 습득시키고 파견 내정자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에 신경을 쓰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고, 스포츠 이외에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나 생활습관을 체험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과의 스포츠 · 문화교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더욱 깊이 있게 실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스포츠소년단(일본체육협회가 1962년 창설, 현재 약 83만명 가입)은 각 도부현 스포츠소년단과 협력하여 제40회(2013년) 일 · 독스포츠소년단 동시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39회에 걸친 교류 성과를 포괄하여 소년단 활성화와 소년단원, 소년단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 체제 중의 기본 체제비(숙박비, 식사비, 시설 입장료 등)는 정부가 지원하고, 항공료 등 기타 개인 경비로 1명당 25만엔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파견자의 선발은 스포츠소년단으로 활약하는 전국의 청소년과 스포츠소년단 지도자의 신청을 받아 각 시도지부가 신청하면, 일본올림픽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파견한다. 일 · 독 스포츠소년단 동시 교류의 효과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소년단원이 나 지도자의 시야가 넓어졌다’, ‘스포츠소년단의 PR효과’, ‘스포츠소년단의 활성화’, ‘스포츠소년단의 존재 인식’, ‘스포츠리더의 육성 · 증가’와 같은 항목에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국가로부터 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관련이 있는 지도자를 초청하여 일본의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현황, 시설,

연구 등을 시찰하는 사업진행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동경(東京都)과 사이타마현(埼玉県)에서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는 스포츠소년단을 비롯한 일본의 청소년 스포츠진흥에 관한 체계와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어린이의 정신적 회복을 응원하는 “스포츠한마음프로젝트”에 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청소년스포츠의 현상에 대한 강연, 활동에 대한 시찰 등, 각국 참가자의 사례 발표, 전 참가자 토론 등이 벌어졌다. 2012년도 참가국은 한국,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14개국에서 각 2명씩 28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은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2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청소년 스포츠와 관련된 지도자와 학자들을 국제교류를 위해 초청해서 벌이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참가한 사람의 설문 응답을 보면 “이 사업에서 얻은 학문적 정보가 매우 많았으며, 운영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교류 사업에 참가하여 보람을 느꼈다. 일본체육협회에 감사하면서 만약 이 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일정을 조금 유연하게 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식을 깊게 할 수 있고 의사소통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매우 좋은 사업이었고, 나 자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日本体育協会, 2013).

이와 같이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스포츠 국제교류 사업은 모두 문부과학성이 주무관처가 되어 독립행정법인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지원하는 기금을 받아 일본체육협회가 국제교류 사업 전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국가와 대상, 지도자, 행정이 등으로 그 지원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한·일 생활체육 교류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간, 종목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에 지원하는 1년 예산(2010년 현재)은 약 3억 엔에 이르고 있다.

UNOSDP

세계최고의 국제기구인 UN의 UNOSDP(United Nations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는 스포츠를 통해 저개발 국가들에게 개발과 평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무국이다.

UNOSDP의 주요 사업으로 YLC(Youth Leadership Camp)를 들 수 있으며, YCL은 년 간 4회에 걸쳐서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회당 30명 정도의 극한 환경에 처한 저개발국가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향상과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UNOSDP가 주최하는 차세대 지도자양성프로그램 YLC(유스리더십캠프)가 개최되었다.

Youth Olympic Games

유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s, YOG)은 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적인 대회로 열리며, 2년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하계 청소년 올림픽이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IOC 회장인 자크 로게가 2001년에 구상 했으며, 2007년 7월 6일에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19차 IOC총회에서 유소년 올림픽경기의 개최를 승인했다.

참가 선수들의 나이는 14~18세로 제한되며, 대회의 특징은 국가대항 적 성격이 강한 성인올림픽과 달리 종목별 순위를 가려 메달을 수여하기는 하지만 페스티벌 형태로 세계 각국의 유소년들이 함께 만나 화합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다.

연도	횟수	올림픽	개최도시	연도	횟수	올림픽	개최도시
2010	I	1회 하계 청소년 올림픽	 싱가포르	2012	I	1회 동계 유소년 올림픽	 인스브루크
2014	II	2회 하계 청소년 올림픽	 난징	2016	II	2회 동계 유소년 올림픽	 릴레함메르
2018	III	3회 하계 청소년 올림픽	 부에노스아이레스	2020	III	3회 동계 유소년 올림픽	미정

ICG(국제유소년스포츠축제)

- 명칭 : International Children's Games(국제유소년스포츠축제)
- 정신 : 서로 다른 문화속의 학생들이 만나서 올림픽 정신을 발전시키는 비 정치적 · 비파벌적 · 비 인종주의적인 모임을 추구
- 연혁
 - 1968년 유고슬라비아 Metod Klemence 교수의 주창으로 시작됨
 - 1968년 유고슬라비아 제1회 대회가 개최됨
 - 1990년 IOC에서 승인한 세계유소년스포츠축제의 성격이며, IOC가 회원도시 중에서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개최도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함

○ 조직

– 본부 : 스위스 로잔(위원장 : 독일 Torsten Rasch)

– 조직 : 총회, 사무국, 감사국, 분과위원회

※ 회원도시는 개최도시 중 회원가입서 제출과 총회 승인으로 가입됨

○ 참가자격 : 12~15세 유소년

○ 경기종목

– 10개 종목 내외(종목은 ICG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개인종목 : 수영, 테니스, 육상, 탁구, 체조 등

– 단체종목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수구 등

▶ 2013년 제47회 ICG 축제 : 캐나다 윈저시(08. 14 ~ 19)

▶ 2014년 제48회 ICG 축제 : 호주 Lake Macquarie(12월 중)

5. 결론

한국스포츠의 국제교류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날로 높아지는 국제스포츠의 중요성과 세계적 조류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스포츠 역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으로 국가 간 및 NOC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는 국가차원의 협정이나 올림픽위원회 간 협약 등 공식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는 국제체육과가 있음에도 업무의 대부분이 국제대회와 국가대표 선수의 교류, 합동훈련 등 엘리트 분야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이나 순수 스포츠 동호인들이 주축이 된 민간외교 차원의 국제교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미지와 국제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인 유소년의 국제교류에도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소년스포츠 국제교류는 국제적 민간외교 측면에서의 스포츠외교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펼치는 공식외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유소년의 스포츠교류는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외연적 ‘비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유소년스포츠의 국제교류는 가장 원초적이고 평화로운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유소년스포츠의 국제교류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의 공식적 외교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스포츠는 국가 간에 행하는 문화교류로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민간의 우호증진과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국가 경쟁력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간 문화교류의 주요 콘텐츠로서 유소년스포츠가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 6



국가 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현황과 과제 -2012 대구 ICG 사례를 중심으로-

김 선 진

(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 과장)

국가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현황과 과제

- 2012대구ICG(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스포츠는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외교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평화, 우애 등과 같은 가치의 추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대회가 구현하고 있는 상징들은 국기, 국가, 성화, 시상식 등과 같은 국가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외교적 도구로서의 사용을 촉진시킨다.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민간외교 측면에서의 훌륭한 스포츠외교라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의 공식적 외교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스포츠는 국가간에 행하는 문화교류의 한 종류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국민간의 우호증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간 문화교류의 주요 콘텐츠로서 스포츠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문화 및 관광산업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소년 교류의 경우, 향후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세계스포츠프로그램¹⁾, 일·중 청소년 스포츠교류²⁾, 일·한·중 주니어교류³⁾, 일·독 스포츠소년단 동시교류⁴⁾ 등 일찍이 국민과 외국인들 간의 소통과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운동과 건강 및 사회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68년에는 정치와 종교, 인종을 초월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우호 증진 목적으로 ICG(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2012년 대구에서 개최된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를

1) 세계스포츠프로그램 : 미국정부 주도의 스포츠를 통한 미국 국민과 외국인간의 소통과 문화적 교류 지원 프로그램. 미국 무부의 여성 국제프로그램 및 마일 청소년 야구교류, 교육문화국의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등

2) 일·중 청소년 스포츠교류 : 1986년부터 양국 청소년 관계자에 의한 상호교류(격년방문) 프로그램.

3) 일·한·중 주니어교류 : 1993년부터 매년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11종목 스포츠교류

4) 일·독 스포츠소년단 동시교류 :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소년단 자질향상 및 지역간 교류촉진 사업

년스포츠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간 청소년 스포츠교류 현황과 과제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II. ICG(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1. ICG 개요

ICG(International Children's Games,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2차 대전 직후 유고슬라비아 Metod Klemenc 교수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하였다. 정치와 종교, 인종을 초월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만남, 우호증진을 추구하며 1968년 슬로베니아에서 처음 대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ICG COMMITTEE 본부는 스위스 로잔느에 위치하고 총회, 사무국, 감사국, 분과위원회 등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장은 독일의 Torsten Rasch가 맡고 있다. 회원도시는 개최도시 중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도시에 한해 총회 승인으로 가입된다. 1990년 IOC에서 승인한 세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격으로 대회는 ICG가 회원도시(22개국 32개 도시) 중에서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개최도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를 개최한다.

표 ICG 회원국현황

연번	국가명(도시명)	연번	국가명(도시명)
1	Andorra(Andorra)	13	France(Troyes)
2	Thailand(Bangkok)	14	Taiwan(Taipei)
3	Czech Republic(Cesky Krumlov)	15	Italy(Udine)
4	USA(Cleveland)	16	Ukraine(Ushgorod)
5	England(Coventry)	17	Slovakia(Bratislava, Prakovce-Helcmanovce)
6	Germany(Darmstadt)	18	Slovenia(Celje, Maribor, Murska Sobota, Ravne na Koroskem, Slovenj Gradec, Velenje)
7	Austria(Graz)		
8	Canada(Hamilton)	19	Switzerland(Geneve, Lausanne)
9	Romania(Medias)	20	Spain(Granollers, Logrono)
10	Monaco(Monaco)	21	Greece(Patras, Sparta)
11	Poland(Plock)	22	Hungary(Sopron, Szombathely)
12	Iceland(Reykjavik)		

표 **최근 5년간 ICG 개최 현황**

구분	개최국	개최도시	개최기간	개최종목	참가인원
46회	대한민국	대구	2012. 7. 12 ~7.17	7종목(육상, 수영,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1,461명
45회	스코틀랜드	라나크셔	2011.8.3. ~8.9	9종목(육상, 축구, 배드민턴, 골프, 유도, 수영, 요트, 테니스, 배구)	1,500명
44회	바레인	마나마	2010.6.28. ~7.6	7종목(육상, 수영, 탁구, 태권도, 축구, 배구, 핸드볼)	1,200명
43회	그리스	아테네	2009.6.23. ~6.28	6종목(육상, 배구, 축구, 체조, 수영, 테니스)	1,600명
42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2008.7.10. ~7.15	7종목(배구, 축구, 육상, 골프, 탁구, 테니스, 수영)	1,400명

2. 2012 대구ICG



1)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12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International Children's Games, Daegu2012)
- 대회기간 : 2012. 7. 12(목) ~ 7. 17, 5박6일간 * ~7.12(입국), 7.17~(출국)
 - 개 회 식 : 2012. 7. 13(금) 19:00~20:40, 계명대학교 노천강당, 3,000명
 - 폐 회 식 : 2012. 7. 16(월) 19:00~21:00, 계명대학교 체육관, 2,500명
- 장 소 : 대구시민운동장, 계명대학교, 두류수영장, 두류테니스장, 매곡정수장축구장
- 경기종목 : 7종목(육상, 수영,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 참가규모 : 34개국 76개도시 1,461명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대구광역시
- 주 관 :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학)협성교육재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09년 4월 ICG축제 유치의향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출발로, 같은해 6월 ICG 실무진이 대구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총회에서 대구 개최를 확정하였다. 2010년 9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와 대구광역시간 MOU를 체결하여 대회유치를 위한 공동준비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4월 준비상황 중간점검과 업무조인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ICG

위원회와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축제운영과 경기시설에 대한 최종실사를 거쳐 축제준비를 완료하였다.

2012년 대구대회는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염원을 담은 “Be One!”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전통 풍물놀이의 주역인 상모꾼을 표현한 캐릭터로 축제에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종목별 로고도 상모꾼과 종목의 특징을 담은 캐릭터로 제작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 주었다.

7월 12일까지 입국을 마친 34개국 76개 도시 1,461명(ICG 위원 21, 시대표 64, 단장 75, 코치 186, 선수 910, 동반자 205)의 참가자는 13일 저녁 계명대학교 노천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14일부터 육상, 수영,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태권도 7종목 경기에 참여하였다. 종목별 경기는 참가자 숙소가 위치한 계명대학교내의 시설을 중심으로 두류수영장, 두류테니스장, 매곡정수장축구장 등에서 개최되었다. 큰 사고 없이 대회가 무사히 치러졌고, 16일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동 행사는 행사전반의 기획, 운영, 관리 등을 맡은 국민생활체육회와 대구광역시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목별 경기운영을 맡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와 등록 및 참가자관리, 위원회 관리 등을 담당한 (학)협성교육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대회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대구시비 2억,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협성재단 및 관련기관, 기업체 후원금 3억 등 총 8억으로 5박 6일간의 체재비와 7종목의 경기,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위한 행사개최 등 참가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축제로 진행됐다.

2) 분야별 축제운영

가. 시설 및 종합상황실 운영

축제 시설은 선수숙소로 사용된 계명대학교 기숙사(명교생활관)를 중심으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을 본부숙소로 사용하였고, 개회식이 이루어진 계명대학교 노천강당, 폐회식과 배구경기가 이루어진 계명대학교 체육관, 태권도 경기가 이루어진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 육상경기의 시민운동장, 탁구경기의 시민체육관, 수영경기의 두류수영장, 테니스경기의 두류테니스장, 축구경기의 매곡정수장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하였다.

축제의 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축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명대학교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주최 및 주관기관 이외에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안전을 위해 계명대학교, 경찰청, 시교육청, 소방본부, 대구광역시 구·군청 등이 소관업무를 위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등록

등록은 (학)협성교육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ICG 위원, 시대표, 단장, 선수, 자원봉사자, 직원 등 대상별로 색상을 달리한 등록코드를 부여하여 출입구역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고, 대상에 따른 안내등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등록센터는 선수촌(계명대학교)과 본부호텔(인터볼로 엑스코)에 설치하여 24시간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등록센터에는 통역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신속한 등록과 웰컴백 배구, 숙소안내 등 등록대기시간을 단축했으며 선수촌 입촌시 유의사항 및 투어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다. 경기운영

경기운영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에 담당하였으며 경기일정 및 기술규정은 ICG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였고 각 대구광역시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심판과 운영요원 선발, 경기시설 설치, 용기구 준비, 경기진행 등을 담당하였다. 7종목 경기는 종목별 국제경기규정 및 청소년대회에 적합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을 준비하였으며, 축제기간 우천관계로 일정이 조정된 야외경기인 테니스를 제외하고는 6종목은 기준에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실시간으로 메달순위를 집계하였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종합 1순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뒤로는 홍콩, 북경, 방콕 등이었으며 개최도시인 대구도 5위를 차지했다.

라. 숙박 및 급식

대회준비위원회는 축제에 참가하는 ICG 조직위원회, 선수, 시대표, 단장, 코치 등 축제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명대학교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활용했으며 인터볼고 엑스코를 본부호텔로 선정하여 운영했다.

급식은 선수와 임원 모두 본부호텔인 인터볼고엑스코에서 운영하였으며, 선수촌 식당은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의 식당(400석)을 활용했다. 경기 및 문화행사를 고려하여 배식시간을 조정하였고 조직은 빵 뷔페로 청소년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고려하여 식단을 편성하였고 점심은 경기관계로 도시락을 제공하였으며, 저녁은 일일 영양균형트 고려하여 풍성하게 고려하였다.

마. 수송 및 인력

축제 수송기간은 7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일자별 입국 및 출국현황에 맞춰 수송차량 및 운전원 확보, 직선코스와 순환코스로 분리 운영하였다. 또한 경기장, 선수촌, 본부호텔, 문화행사 참여

등 코스와 목적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하여 참가자들에게 최대한의 수송편의를 제공하였다.

인력운영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원 자원봉사자, 행사운영 관계자 등 1,019명이 역할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참가도시별로 315명의 중·고생 선수동행 전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입국부터 출국까지 밀착봉사를 실시하였고, 캠퍼스 안내를 위해 52명의 가이드도 배치되었다. 107명의 통역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등록, 수송, 급식, 경기 등 분야별로 적정인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심판 및 운영요원 310명과 함께 음식체험부스 운영 및 운영관계자 235명도 참가선수단의 눈높이에 맞춰 배치되었다.

바. 소방 및 의료

참가자 안전을 위해 소방 및 의료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대회 전 기간동안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한 3개 소방서의 34대의 소방차량, 누계 총인원 130명이 동원되어 기동순찰 및 근접대시, 소방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선수단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3개의 지정병원을 운영하였다. 또한 전 경기장내 13개반 26명의 의료지원반을 운영하여 응급환자의 현장진료 및 지정병원 이송을 도왔으며 감염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을 방역소독 하는 등 방역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실제로 행사기간중 부상을 입은 선수와 코치진 등 27명이 도움을 받았다.

3) 행사준비

가. 환영연 및 개·폐회식

7월 13일에는 오후에는 축제에 참가한 도시대표와 ICG 조직위원회 임원을 환영하며 각 도시별로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환영연이 개최되었다. 계명대학교 의양관 운제실에서 스탠딩뷔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ICG위원 26명 및 도시대표 66명, 관련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간 정을 나눴다. 저녁에는 역시 계명대학교 노천강당에서 행사 개회식이 개최되었는데, 3천명 이상의 선수와 관중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각국 선수들의 퍼레이드와 부채춤, 대고공연, 태권도 시범과 비보이 공연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회식은 참가선수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사로 관중 등 참가자들의 환호와 ICG 위원장의 참사를 받으며 성대한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대회가 마무리되는 16일에는 먼저 대구·경북 5개 대학이 음식체험부서를 운영하여 참가선수들에게 한국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폐회식은 페어플레이 팀과 선수시상이 이어 감사장 전달 등 공식행사로 이어지며 마무리되었고, 식후행사로 사물놀이와 댄스, 비보이 등 한류물결을

세계청소년들에게 전파하는 행사를 대최하여 세계 각 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나. 공식회의 및 차기도시 프레젠테이션

경기운영과 관련된 기술규정 및 경기진행을 위해 관련회의가 개최되었다. 12일 인터불고엑스코에서 개최된 ICG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경기전날인 13일에는 계명대학교에서 ICG 기술위원과 대구심판장 및 기술위원 회의, ICG 기술위원과 전체코치회의가 있었고, 종목별경기장에서는 ICG 기술위원과 종목별 코치회의가 있었다.

매년 ICG축제 기간에는 차기도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진다. 금번대회에서는 14일 오전 차기 개최도시인 우파(동계, 13년 1월)시와 원저(하계, 13년 7월)시의 축제운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다. 문화행사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종목별 경기 이외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매주 토요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존에 참가선수단들이 합류하여 요리·한지·전통문화 체험활동과 공연을 관람하는 어울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희망자 전원에게 이월드 관람권을 배부하여 대구를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고, 숙소에서 전통한복체험을 통하여 품격 높은 한국의 미를 세계속에 각인시켰다. 아울러 별도로 선정된 대구의 근대골목 투어와 동화사 템플투어, 동성로 투어, 동화사 및 대구시트우어 등 대구를 소개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Ⅲ. 수행성과 및 문제점

1. 2012대구ICG 수행성과

2012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저비용 고효율 지구촌 글로벌 축제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시설물 활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한

청소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 글로벌 축제로 치러냈다는게 내·외부의 시각이다. 대구시비 2억,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등 총예산 8억으로 5박 6일간의 체제비와 7종목의 경기,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활동 등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축제로 진행되었다. 동등한 규모의 타 국제대회가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효율적인 진행이다. 대회 운영 관계자들은 최고의 대회 구현을 위해 경기시설과 숙소, 음식, 편의시설 등 축제운영 분야별로 완벽한 준비와 진행으로 대구ICG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의 최고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참가자들의 최상의 만족도다. 이구동성으로 감동적인 개회식, 친절환 자원봉사, 완벽한 수송, 편리한 급식시스템, 만족스런 경기시설, 쾌적한 잠자리 등 축제 관계자에게 찬사를 연발했다. 수년간 ICG 축제에 참석한 선수단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최고의 축제’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계기도 됐다. 최근 청소년 자살 등으로 의기소침한 청소년들에게 세계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관계형성을 통한 자신감 회복의 시간이 됐다. 또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며 국제인으로 마인드를 함양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품격 높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 축제가 됐다고도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체험 등을 통해 한국 브랜드를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구의 도심행사인 문화존 참여, 골목투어, 동성로투어, 근교권투어 등 다채로운 즐거움과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해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아울러 동 대회 공동 주관인 (학)협성교육재단의 신철원 이사장의 경우 지난 16일 캐나다 원저에서 열린 ICG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집행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 ICG 최고의결기구로 하계·동계 대회 개최지 선정, 조직 운영, 대회 종목선정 등 ICG업무를 총괄한다. 신 이사장이 ICG집행위원에 선출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국제청소년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청소년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문제점 도출

이번 대회가 모두 훌륭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행사를 위한 조직적 지원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대회 준비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수년전에 마련하여 진행하지만 2012대구ICG 대회는 행사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인력이 투입됐다. 국민생활

체육회의 경우 직원 1명과 담당차장이 다른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행사를 준비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6명의 청소년과 담당공무원을 TFT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주관단체인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와 (학)협성교육재단의 경우도 기존의 업무와 병행하여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강도로 인해 행사시작 몇 일 전에야 겨우 행사준비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홍보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전 진행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하지 못하다보니 국내에서 많은 홍보를 이루지 못했다. 물론 대구 시내 많은 중고생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지만, 보다 넓은 홍보가 되었다면 타 시도에 더 많은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는 행사진행상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 엘리트 대회와는 달리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는 선수와 가족, 참가자들과의 교류가 자유롭고 상호간 경기 중 왕래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선수들과 관중들 사이 공간이 나뉘지 않아 간혹 혼잡스러운 모습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동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서 그쳐 사업성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회가 끝난 뒤 지속적인 교류지원을 위해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협성교육재단의 경우 대구시의 일부지원과 자체예산으로 매년 학생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타 시도의 경우 축제참여가 제한적이다. 더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스포츠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III. 발전방안 및 제언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국제대회의 경험과 함께 우호적 민간외교의 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제청소년교류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하다.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스포츠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산하 기관에서 마련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나 외국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를 담당하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서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부처 간에 협업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국제청소년교류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의

경우 국내에서 대회개최를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개최되는 대회에 국내 청소년을 참가시킬 수는 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매년 펼쳐지고 있다. 이곳에 국내 청소년들을 참가시켜 국제행사의 경험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고 친선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계획되어진 각종 국제행사와 병행하여 다채로운 청소년 교류의 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법도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행사개최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위의 문제점에서 설명하였듯 2012대구ICG의 경우도 행사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보다 많은 국내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았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표 7



남북스포츠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 학 래

(한양대 체육학과 명예교수)

남북스포츠교류의 현황과 과제

— 목 차 —

- 냉전시기의 남북한 국제스포츠 활동
 - － 남한의 IOC선제가입과 올림픽활동
 - － 북한의 IOC가입과 남북스포츠 경쟁체제 돌입
 - 화해 협력시기의 남북한 스포츠 교류
 - － 서울올림픽이 동서냉전종식에 미친 영향
 - － 남북체육교류의 과정과 성과
 - 남북체육교류 및 공공외교를 위한 향후과제
- ※ 참고문헌

1. 냉전시기의 남북한 국제스포츠 활동

1) 남한의 IOC선제가입과 올림픽운동

광복이후 한국체육이 올림픽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47년 6월 20일 조선올림픽위원회(K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되면서 부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올림픽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외에 올림픽 종목의 경기단체들이 각각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런던올림픽참가대책위원회’는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가운데 올림픽 종목에 해당되는 육상·수영·축구·농구·역도·권투·레슬링·빙상 등 각 경기단체들로 하여금 각각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절차를 밟게 했다.

1947년 봄 대책위원회 전경무 부위원장은 당시 IOC부위원장인 애버리 브룬디지(Avery Brundage)를 방문하여 한국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자문을 받고, 1947년 6월 15일부터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군용기 편으로 떠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원순을 IOC총회에 대신 급파했고, 드디어 KOC는 1947년 6월 20일자로 IOC회원국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선수단은 최초로 1948년 1월 ‘제5회 생모리츠동계올림픽대회’와 동년 7월 29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최된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하게 되었다. 올림픽대회는 국제스포츠교류의 꽃이다. 올림픽대회는 단순한 국제경기대회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스포츠외교의 정상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던 제5회 생모리츠동계올림픽과 제14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는 한국체육의 신기원을 이룬 동시에 올림픽 역사에서도 뜻 깊은 대회였다. 특히 김성집(역도)과 한수안(권투)이 동메달을 획득하고 런던 하늘에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스포츠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우리는 동서양대진영의 정치적 대립으로 반쪽자리가 됐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이외의 모든 올림픽경기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해 왔다. 1976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획득을 효시로 84LA올림픽 금6, 은6, 동7개의 개가를 올렸고, '88서울올림픽에서는 금12, 은10, 동11개로서 세계4위라는 기적을 창출해 냈으며, '92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도 금12, 은5, 동12개를 획득하는 등 모든 올림픽경기에서 G10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92알베르빌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종목이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 갑자기 동계스포츠 10대 강국반열에 오르게 된 한국동계스포츠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신화를 이루어 냈다. '06토리노동계올림픽때까지만 해도 쇼트트랙에만 의존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정수의 쇼트트랙2관왕, 모태범선수와 이상화선수의 스피드종목 금메달, 이승훈선수의 10,000미터 금메달, 그리고 김연아선수의 피겨종목 금메달 등 여러분 야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서 동계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켰다. 이 밖에도 한국은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 북한의 IOC가입과 남북스포츠 경쟁체제 돌입

1952년 헬싱키올림픽대회 이후 북한은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IOC가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1947년 스웨덴 스톡홀름IOC 총회에서 남한이 이미 한반도의 유일한 IOC회원국 자격을 획득 했다. 그 결과 IOC의 '1국가 1 NOC'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IOC가입과 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은 IOC가 동서독 단일팀구성을 조건으로 동독의 IOC가입을 승인한데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IOC가입을 위한 활동과 남북체육교류를 제의해 왔다. 드디어 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54차 IOC총회는 북한의 NOC활동범위를 북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올림픽대회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일원으로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1962년 6월 옛 소련에서 열린 제59차 IOC총회에서 "64토쿄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마침내 남북한은 IOC의 중재로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느 IOC본부 사무실에서 최초의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했다. 제 1차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 단일팀 구성원칙에 동의하여 단기(올림픽마크 아래 'KOREA' 표기), 단가(아리랑), 선수선발원칙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1963년 5월17일부터 6월 1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의 대표들은 선수선발, 심판배정, 경비분담 등을 협의했으며,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1963년 6월 30일 내에 쌍방 NOC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1963년 7월 26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는 1-2차 회담 때의 미결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상호불신으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실질적 성과를 맺지 못한 채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북한은 1963년 10월 19일 서독바덴바덴에서 열린 제 60차 IOC총회에서

IOC가입을 승인받았고, '64토쿄올림픽대회에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1964년 제9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대회부터 독자적으로 올림픽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64토쿄하계올림픽대회에도 참가하려했다. 그러나 IOC가 가네포(GANEFO)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자 출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가네포 대회'란 대만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세계를 반대하는 제3세계의 체육대회로서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이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 중 400m와 800m 세계신기록자인 신금단이란 선수가 있었다. 금메달 2개가 확실했던 신금단선수가 출전자격을 잃게 되자 북한은 국호문제(D.P.R.Korea)를 내세워 선수단을 철수 시키고 말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대회 참가는 1972년 뮌헨올림픽대회가 처음이다. 모두 21개 종목 가운데 육상, 역도, 여자배구, 권투, 레슬링, 사격, 체조, 양궁, 조정, 유도 등 10개 종목에 6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을 금메달 1개(사격), 은메달 1개(권투), 동메달 3개(유도 · 여자배구 · 레슬링)로 종합순위 2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북한은 첫 출전한 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특히 소구경복사에서 리호준이 금메달을 따냈으며, 여자배구 동메달은 3,4위전에서 한국을 꺾고 따낸 것이었다. 종합성적에서도 북한 22위, 남한은 33위에 그쳤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얼올림픽대회에서도 축구 · 육상 · 사격 · 양궁 · 권투 · 역도 · 유도 · 레슬링 등 8개 종목에 선수 61명, 임원 29명 등 9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북한 팀은 권투에서 금 · 은메달 각 1개씩 얻는데 그쳤다. 금 1개, 은 1개, 동 1개로 종합 19위를 차지한 한국보다 뒤진 22위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동계스포츠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있었다.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제 9회 동계올림픽경기에 3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부터 북한동계스포츠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대회 여자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필화선수는 1970년 핀란드 로비니에미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스피드스케이팅 3,000m와 1,50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또 따냈고, 1971년 일본 삿포르동계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냄으로서 동계스포츠계를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1966년 노르웨이 세계여자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김종순선수가 1,500m 금메달, 10,000m 은메달, 3,000m 동메달을 따냄으로서 여자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1986년 일본삿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동계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한춘옥선수가 여자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피겨페어스케이팅 종목에서 함혜영선수와 김혁선

수가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관중들의 함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북한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이밖에도 북한에는 고현숙선수, 최성철선수 등 유망한 신인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현숙선수는 2008년 2월 노르웨이컵 국제빙상대회에서 여자 500m와 1,000m를 석권했고, 2009년 독일 챌린지컵 국제대회 500m와 1,000m에서 또다시 우승했으며, '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도 500m 9위, 1,000m를 13위를 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 리성철선수 역시 밴쿠버올림픽에서는 실패했지만, 2008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트로피대회 시니어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망한 선수이다.

2. 화해 · 협력시기의 남북한 스포츠교류

1) 서울올림픽이 동서냉전 종식에 미친 영향

서울올림픽은 “우리도 해냈다”는 자긍심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 같은 민족적 자긍심은 우리로 하여금 일제(日帝)에 의한 식민통치와 광복 후 강대국의 지배하에 형성된 민족적 열등감이라는 심리적 대외 종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다. 또한 160개 참가국의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직접 접하게 되는 경험은 국민의식을 일깨워 국제화 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케 함으로서 냉전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의 장벽이라는 정치적 억압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기반을 허물어 버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서울올림픽의 수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대 공산권과의 교류가 활성화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들과의 우호관계수립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 전 세계적인 국제화 조류 속에서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도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었다. 북한과의 계속된 대립은 냉전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공산권과의 단절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서울올림픽은 이러한 우리의 외교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특히, 서울올림픽 기간 중 동독의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보도색깔을 부정적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심지어는 호의적인 평으로 바꾸어갔다. 서울의 감명적인 면모는 서독의 매체들에 의한 생생한 보도와

더불어 동독 TV의 현장생방송으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의 시민들은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매혹적인 건축기술, 개막식의 완벽한 조직, 컴퓨터와 TV방송기술, 서울의 밤낮의 감명적인 생활상, 우호적인 분위기 및 남한 사람들의 따뜻한 접대 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노력 했다는 사실은 동·서독의 통합을 신중히 고려하게 하는데 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은 한국과 공산권의 중주국인 소련사이의 관계, 특히 무역·과학·문화·기술 등의 측면에서 훨씬 진일보한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한국과 소련 사이에 국교수립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언론의 한국이미지가 급격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대중 매체들은 한국의 발전상, 특히 통신기술 발달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자국에 전달하여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급격히 세계 속의 중요한 산업국로 부상하고 있는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간접적으로 소련의 개혁정치 과정과 재건과정을 자극하여 고무하고 가속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2) 남북체육교류의 과정과 성과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8년 12월 21일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위원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종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1990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 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 간 회담을 1989년 2월 하순에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왔다. 이에 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 김종하위원장은 1988년 12월 30일 대북서한을 통해 북한 측 제의에 동의하는 한편, 1989년 3월 9일 판문점 한국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다.

남북체육회담은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및 참가협의를 위한 회담과 남북한 축구 및 탁구 단일팀 구성을 이끌어 내는 회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구성을 위한 회담은 1989년 3월 9일부터 1990년 2월 7일까지 9차례의 본 회의와 6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지면서 진행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남북이 각각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1) 평양·서울통일축구대회

1990년 9월에 개최된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는 공동응원의

계기가 마련되고, 이 같은 화합의 분위기가 양측 체육장관회담으로 이어져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되었다. 먼저 북한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 제1차전은 1990년 10월 11일 평양능라도 ‘5.1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분단 44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통일축구 평양전에서 김유순 북한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축구경기가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 이바지할 민족 화해의 경기, 단합의 경기, 통일의 경기”가 될 것을 강조하였고, 남한의 정동성체육부장관은 “참된 스포츠정신을 통해 남북의 동포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 통일축구경기가 남북통일의 그날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하여 15만명 관중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또한, 남북통일축구 제2차전이 1990년 10월 23일 서울올림픽경기장(잠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다음날(1990, 10, 24) 남북의 체육장관들은 성공적인 통일축구를 자축하면서 제41회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리스본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결정된 양측 대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 측		북한 측	
수석대표	장충식	단장	김형진
차석대표	이학래	부단장	장 웅
대표	임태순	대표	김정식
“	김사홍	“	김상부
“	박수창	“	김영석

남북한의 대표들은 1991년 2월 12일 오후 5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41회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리스본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합의서에 역사적 서명을 했다. 1990년대 남북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1990년 11월 29일 이를 위한 제1차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한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4차례의 체육회담 끝에 이끌어낸 남북스포츠 단일팀의 구성은 7천만 온 민족이 깜짝 놀랄 만큼 분출된 사건이기도 했다.

(2) 코리아탁구단일팀의 세계제패

코리아탁구 단일팀은 1991년 4월 29일 일본지바에 있는 닛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9연패에 도전하는 중국을 접전 끝에 3대 2로 꺾고 우승했다.

코리아 단일팀(현정화 · 이분희)의 우승장면이 TV를 통해 남북한에 중계됨으로써 7천만 겨레에게 우리가 진정 한 민족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우리에게 왜 통일이 필요한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언론은 “냉전장벽에 탁구구멍 뚫다”라던가 “코리아팀이 새긴 역사” 등의 표현을 써서 그 감격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남과 북이 하나되어 세계의 정상을 정복한 탁구단일팀 세계제패는 남북이 합할 때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체제와 이념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있던 민족적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확신을 깨우쳤으며, 이러한 남북화해의 계기마련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지름길을 개척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3) 코리아 청소년축구 단일팀의 개가

1991년 6월 14일부터 2주일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게된 “코리아청소년축구단일팀” 선수들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두 차례의 평가전을 가진 후 합숙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특히 코리아팀 평가전은 남북통일축구교환경기가 이루어진 후 7개월 만에 전개된 남북스포츠교류라는 점에서 또다시 7천만 모두의 시선을 모았고, 남북스포츠교류의 실현을 통한 인적교류의 가능성을 재확인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남북스포츠교류의 중요성과 현실적 의의는 선수 개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코리아팀으로 출전한 청소년축구단일팀은 아르헨티나 등 세계 최강팀을 뛰어넘으면서 경이적인 8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이루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그동안 전혀 다른 환경과 사고방식, 심지어 경기용어까지 낯설어진 오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오직 정신적으로 호흡의 일치를 이루어 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4) 남한 주최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그 동안 체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한 남북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그 획기적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규모 응원단과 함께 북한 대표팀이 참가한 것이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 팀 참가를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했다. 첫째, 북한선수단의 대회참가, 둘째, 백두산 성화채화 및

봉송, 셋째, 북한예술단의 개·폐회식 등 문화예술행사 참가였다. 또한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팀 참가는 사상·인종·계층의 벽을 넘어 대회주제인 “하나가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회의 상징적인 이유가 되었다.

북한선수단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민족통일평화체육축전에도 참가했다. 남측 150명, 북측 184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이대 회 개막식에는 북한의 마라톤선수 정성옥과 남한의 탁구선수 김무교가 나란히 성화를 들고 경기장을 돌아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 밖에 「통일기」를 앞세우고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한 국제대회로는 2000시드니올림픽과 2004아테네올림픽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개최된 국내체육행사에 남한선수단이 참가한 대회는 1999년 평양장주영체육관 준공기념 「통일농구대회」와 1999년 평양양각도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그리고 2000년 평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통일탁구대회」, 2002년 평양·서울에서 개최된 「태권도 시범대회」 등이 있었다.

3. 남북스포츠교류 및 공공외교를 위한 향후과제

우리는 1990년 「통일축구대회」를 필두로 그동안 적지 않은 남북스포츠 교류를 해왔고,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평화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 졌다. 즉, 남북관계가 이념적 대립과 갈등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남북체육교류야말로 한민족 화합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이제 문제는 한민족 화합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남북체육교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교류·협력시대를 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는 뚜렷한 방향성의 정립과 이에 접근하는 원칙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와 그 발전방향 모색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체육관련 실무협의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궁극적으로 (가칭) 「남북체육 공동사무국」의 출범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실무기구는 남북교류·협력시대의 체육교류추진을 전담하는 전략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체육학계, 연구기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체육교류 추진을 뒷받침할 (가칭) 「남북체육정보자료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체육학과 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야 할 이 센터는 지속적인 남북체육교류가 가시화될 경우, 우선 체육정보자료 교환 및 기술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내실 있는 남북체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체육관련 인적교류와 공동행사 등이 가능한 대단위 (가칭) 「통일체육공원」을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체육공원」은 남북한 유·소년들이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통일야영장」을 비롯하여 종합체육시설, 예술의 집, 도서관, 박물관 등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체육공원」의 위치는 서부지역 판문점 주변이나 중부지역에 있는 철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철원에는 신라왕족이었던 궁예가 후삼국 통일의 꿈을 안고 905년에 태봉국 도성을 건축한 역사유물이 있는 곳이다. 태봉국 도성은 DMZ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도성 자체가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태봉국 도성이 남북의 협력으로 복원되고, 그곳에 통일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 남북유소년 교육과 체육문화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유소년 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과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중·고등학교의 자원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전국의 체육중·고등학교들을 특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태권도를 비롯한 그네뛰기·널뛰기·씨름 등의 시범단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체육부, 〈올림픽 이후의 체육정책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989
- 최상철(남북체육교류에 관한 연구), 1989
- 통일원, (통일백서), 1990
- 체육청소년부,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991
-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 체육〉, 1992
- 이학래, 〈한국현대체육사〉, 2008
- 이학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스포츠 발전전략〉, 2010
- 이학래 · 김동선, 북한의 체육, 2004

발표 8



스포츠외교와 공공·민간 외교의 개념과 범위

김 나 라
(스포츠외교학 박사)

스포츠외교와 공공·민간 외교의 개념과 범위

1. 스포츠외교의 개념 정의

1) 외교의 개념 및 정의

외교(外交)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이다. 외교의 주체는 자국과 다른 나라이며, 목적은 양국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라 함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호적인 상태를 형성,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는 외부로부터 자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영국의 외교관 Nicolson(1886-1969)은 외교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고 있다. 첫째, ‘외교란 공식 외교관들의 활동을 통한 국가 간의 교류 및 소통과정’이라는 협의의 개념과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 ‘외교란 국제 사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행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들’이라고 말한다¹⁾. 즉 외교란,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타국의 외교관과 소통하며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정책 수행에 동원되는 각종 기법들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를 지나 국가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방송, 인터넷 등 매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각국의 이슈에 대해 실시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교의 개념도 확대되었다.

전통적 의미에서 외교는 Nicolson의 정의처럼 대사의 교환, 공식 대표 사이의 메시지의 전달, 그리고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것 등으로 이해했지만, 현대적 의미의 외교는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사절단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통치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국가구성원이 다른 나라와의 의사소통에 참여해 상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1) 윤강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2012년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지속하는 과정을 총칭²⁾하게 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외교력은 크게 국가의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보상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이념이나 가치, 문화적 접근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나누어진다³⁾. 과거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나 민족 우월 주의적 대립에 있어서는 하드파워의 외교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문화를 무기로 국가 간의 조화와 이익을 얻는 소프트파워가 대세라 볼 수 있다⁴⁾.

하드파워 분야의 공식적인 외교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소프트파워 분야의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는 소위 ‘민간외교’ 차원까지 확장되면서 해당 민간 전문가들도 타국과 외교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스포츠외교의 범위

스포츠외교는 스포츠(Sports)와 외교(Diplomacy)의 합성어로서, 앞서 살펴 본 외교(外交)의 사전적 의미로부터, ‘다른 나라와 스포츠를 통해 관계를 맺는 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국가 간에 문화적인 관계를 맺는 것, 문화의 다양한 장르 중 스포츠를 통해 국가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스포츠외교’라 할 수 있겠다.

스포츠는 만국 공통어인 ‘경기의 룰(Rule)’을 따른다. 나라별로 상이한 언어, 풍습, 경제적 규모보다 정해진 경기규칙이 우선하므로 국가별 이념을 초월하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진행되므로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외교의 목적인 선의의 경쟁, 국가위상 제고 그리고 협동을 통한 상생과 화합에 부합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자체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려던 외교적 시도들이 많았다. 스포츠외교가 일반 외교와 달리 형식과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외교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상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편안한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김운용 전 IOC 부회장은 ‘스포츠외교는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추진하는 외교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흥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신뢰와 친화력이

2) 박경서 “지구촌 정치학” 1999년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3) 이호영, 유현석, 최경근외 “스포츠외교론” 2009년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4) 최병구 “외교이야기” 2007년도의 책을 참고 하였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

한국 스포츠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져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정부부처로서 제1공화국 시절에 처음으로 문화교육부가 창설(이학래 외 1994, 195-197)된 이후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문교부의 체육담당국에 머물렀다. 전두환 정부 등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체육부가 신설되어 스포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체육부는 노태우 정부 시기 스포츠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되었다. 2007년에 정부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즉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 개최 · 참가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스포츠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국가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체육교류사업의 추진 및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⁶⁾.

가. 정부

정부 차원에서의 스포츠외교 활동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각 지방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 체육부서인 체육교류과에서 스포츠외교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에서는 문화 외교국 홍보과에서 스포츠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육과 및 국제 체육 교류팀 등에서 스포츠외교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외교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부분 조직은 스포츠외교에 관한 정책 입안과 지원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스포츠외교 담당 인력의 다른 업무와의 순환 근무 등으로 스포츠외교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관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적 성격의 행정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외교 전문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⁷⁾.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 내 국제교류팀도 스포츠외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경우 정부차원의 외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로 한국의 경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한체육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민간외교라고 보기 힘들다. 외국의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나 각종 경기 단체 및 체육 단체에서 스포츠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5) 이호영, 유현석, 최경근외 “스포츠외교론” 2009년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6)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참고 하였다.(검색일, 2013, 10.01)

7) 유호근 “한국스포츠외교정책: 분석틀에 모색” 글로벌정치연구소에서 기재된 내용 참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의 공식적 관련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외교로 구분하여 많은 국가가 민간외교로서 스포츠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나. 민간

스포츠외교가 중앙정부 부처에서의 활동이 아닌, 민간단체 및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활동을 민간외교 측면에서의 스포츠외교라고 분류 하며, 이는 국가 공식외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 특히 스포츠의 외연적 ‘비정치성’은 민간외교로서 스포츠외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의 ‘공식외교’로 관계 기능을 하게 된다⁸⁾.

스포츠 정책을 국가에서 개입하는 나라에서조차 스포츠외교는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문화외교가 대표적 민간외교로서 다양한 민간단체의 문화적 교류활동이 국가 간,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시키는데, 스포츠가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단체가 저개발국가에 축구화나 축구공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국가대표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여 그 실적이 국가의 이미지 개선과 위신 제고로 표상되는 점은 민간외교가 공식적인 정부외교 못지않게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⁹⁾.

표 1 스포츠외교의 분류¹⁰⁾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부 외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교류과 -외교부 문화외교국 홍보과 -대한체육회 국제교류팀 -지자체 국제스포츠관련부서	문화적측면	-전 세계 태권도 보급 및 홍보
		경제·통상적 측면	-스포츠 이벤트 유치 -디자인, 광고 업 등의 파급효과 외국 투자 유치
민간 외교	-국가대표팀의 세계대회 참가 -저개발 국가 스포츠 지원 -각국의 NOC활동	정치·외교적 측면	-핑퐁외교 -올림픽 보이콧 -나치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통일·안보적 측면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세계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남북 평화 축구대회

8) 송영우 “현대 외교론” 1997년도 책을 참고하였다.

9) 이호영, 유현석, 최경근외 “스포츠외교론” 2009년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Nixon & Frey, 1996)

10) 출처: 스포츠외교론, 이호영 2009

(1) 외교의 수단으로서 스포츠

과거 스포츠를 통해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71년, 탁구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소위 미-중 ‘핑퐁외교’로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가 탁구 대표 팀의 상호 파견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결국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었다. 통일 독일 이전의 구동독은 스포츠라는 수단을 통해 외교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던 대표적 국가이다. 독일 분단 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 구동독은 서방국가에서의 스포츠 대회 개최 시 동독선수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과 국제적 제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 주도로 소위 ‘운동복을 입은 외교관(Diplomacy in track suite)’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72년 서독과 함께 UN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동독만의 독자적인 팀을 구성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동독 운동선수의 비자발급거부를 철회하는 등 외교기반을 마련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¹⁾. 우리나라 역시 스포츠가 외교의 수단으로 스포츠가 중요성을 갖는 나라로서, 1963년 도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키기 위해 최초의 체육 회담을 개최하는 등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닫힌 문을 여는 교량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하거나 아예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같은 민족임을 재확인해 적대적 긴장감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외교의 목적으로서 스포츠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터 타국과 상호 교류하기 위해 스포츠가 외교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 외에도, 스포츠 자체가 외교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이나 특정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자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정도와 문화를 세계에 알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정비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고 관련 고용의 창출, 나아가 국내 기업의 마케팅을

11) 이옥열 “스포츠의 정치학” 2004년도의 책을 참고 하였다.

통한 내수 신장과 더불어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국제 기구에 진출해 우리나라 스포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 공공외교와 민간외교의 개념 정의

1) 공공외교의 개념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의 학장이었던 에드먼드 귄리언(Edmund Gullion)이 처음으로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그는 1960년대 당시 미국 외교관의 경험을 가지고 냉전의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미국적 생활 방식을 타국의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것에 초점을 둔 일련의 외교적 행위를 공공외교라 불렀다¹²⁾.

공공외교의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그 주체와 시기, 초점의 대상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가 내려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타국의 대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닌다. 샤프(Paul Sharp)는 “공공외교는 국가 ·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으며(Sharp, 박종일 역 2008). 투흐(Hans Tuch)는 공공외교를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타국의 대중과 의사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또한 공공외교는 지식, 예술, 미디어, 언어, 원조 등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이다. 공공외교는 정부외교가 함께 국가 전체의 외교를 구성한다. 즉 정부와 정부, 일국 정부와 타 국 정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공공외교가 성립되는데 특히 일국 국민과 타국 국민들 간의 상호간에 형성되는 공공외교의 패턴이 민간외교라고도 볼 수 있겠다¹⁴⁾. 다시 말해 공공외교는 타국 대중과의 소통 및 이해의 증진과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제고의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12) 안 델리센 역음, [신공공외교] (서울:인간사랑, 2008), 45쪽

13) 정기웅,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 가능성의 모색,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1(2) 229-262쪽에서 참고 하였다.

14) 최재근, International symposium 2012에서 발표한 People to People Diplomacy 141쪽을 참고 하였다.

공공외교는 전통적 개념의 외교와는 좀 다르게 구분된다. 전통외교가 국가나 그 밖의 국제행위자의 대표자들 사이의 관계라면, 공공외교는 다른 사회의 일반대중 및 비공식적인 특정집단, 기구,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¹⁵⁾.

또한 공공외교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선전(Propaganda)은 각국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으며, 냉전기 동·서간 이념적 갈등의 기로에서 공공외교는 선전(propaganda)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이 자국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정보를 제공 한다기 보다는 이념적 선전을 광고하며, 대중들을 동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심화, 정보화 혁명,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의 증가, 특히 미국 뉴욕 9·11 테러의 발생은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공중(Public)의 태도가 특정 국가의 이익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 세계 여론 동향이 각 국가들의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로써 외교는 타국 정부와의 교섭이라는 의미보다는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자국의 정책과 이념을 알리고 이를 전파하는 공공정보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러므로 앞으로는 전통외교가 소프트파워는 물론 하드파워를 주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 신공공외교는 하드파워가 아닌, 제도나 가치등의 소프트파워를 주 수단으로 이용하여 상대국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⁷⁾.

표 2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공공외교**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
대상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단(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전통적 정부간 협상, 대화	PR,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Relation type	수평적(정부간)	수직적(top-down) 일방적(unilateral)	수평적, 쌍방향적(bilateral) 교류 및 대화

15) 박종일 엮음 [신공공외교: 이론과 실제] (서울:인간사랑 2008).

16) 전재성 “미국 부시행정부의 변환외교: 정보화 시대 제국적 지식외교의 등장” 국가전략 12(4)에서 참고 하였다.

17) 김태환 (2011), 21세기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의 성격과 방향,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한러관계 4쪽, 한국국제교류재단

2) 민간외교의 개념

민간외교는 정부와 정부 사이의 외교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일어나는 외교의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또한 민간단체의 외교 활동은 국가간 또는 정부간의 스포츠 외교 활동 보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¹⁹⁾. 특히 스포츠의 외연적 ‘비정치성’은 민간외교로서 스포츠외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의 ‘공식외교’로 기능하게 된다²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핑퐁외교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은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의 스포츠외교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간역할이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의 친선, 우호적 분위기와 정부차원의 외교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 자연스러운 여론외교라고 볼 수 있어 외교적 용어로는 ‘퍼블릭디프로마스’(public diplomacy)로 정의한다. 즉 민간외교가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모멘텀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²¹⁾

민간외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주체의 구성, 성격, 목적, 방법 등에 있어 많은 형태로 나뉘질 수 있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151), 비영리법인(541)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나 기관 및 조직은 각 부처 혹은 정부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교육, 경제, 의료,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봉사단 2,000-3,000명이 구성되어 있는 미국평화봉사단 (peace corps)에 이어 최대의 규모로 활동하게 되고, 700만 해외동포들의 통합네트워크(Global Kore Network), 코리아넷, 사이버 상 네트워크, 재외동포 통합인물 등 DB 구축 중심으로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민간외교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²²⁾.

18) 조성식, 이한규, 강호정 (2002) “스포츠외교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체육과학연구 13(11) 38-52쪽에서 참고 하였다.

19) 권오인 (1988). 한국에 있어서 스포츠의 외교적 기능 분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참고 하였다.

20) 송영구 “현대 외교론” (서울:평민사)에서 참고 하였다.

21) <http://m.sisamagazine.co.kr/articleView.html?idxno=11577&menu=3> “협력관계에서 관계증진으로 민간 외교시대 개막” 중앙매거진 2012년 10월9일 기사 (검색일 2013년10월05일)

22) International Symposium 2012에서 최재근이 People to People Diplomacy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서 참고 하였다.

워크숍자료집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현황과 과제**

인 쇄 2013년 10월 14일

발 행 2013년 10월 1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